

## 노인주거계획을 위한 노인가구의 고령기단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age of Elderly of the Elderly Households for the Elderly Housing

조성희\*

Cho, Sung-Heui

전은정\*\*

Jun, Eun-Jung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and analysis the stage of elderly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ving environment of elderly in Korea. Taking into account the retirement age in Korea, those households with people over 60 years old were chosen for the investigation. For the study methods, an examination of documents centering on previous related studies and the analysis of references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rom which a general social situation can be clearly obtained, are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rom viewpoint of the stage of elderly, parents and children of families mostly live together stage 1 and 2, mostly live separately at stage 3, the rate of living together increases stage 4 and 5. In over stage 4, there are some cases in which the Korean tradition of three generations living under one roof appears as well. The residing period at one place becomes longer as people grow older, which shows clearly the characteristic of 'ageing in place', therefore in order to continue to provide housing support to the elderl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elderly stage will have to be considered. In the life of the elderly, more and more hobby groups and meetings among the older population have been created, which means that elderly centered social activities will become more various, and facilities and community activated methods will have to be provided accordingly. Elderly people become less adaptable in new housing environments as they get older, therefore the housing has to accommodate their capability to adapt and the degree of aging. The stage of elderly can be used as a basic reference for a more effective solution when planning elderly housing in the future.

Keywords : elderly households, the stage of elderly, the elderly housing

주요어 : 노인가구, 고령기단계, 노인주거계획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2000년에 7.2%로 이미 「고령화사회(7% 이상)」에 진입하였으며, 고령자 통계(통계청, 2008. 10)에 의하면 2008년 현재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3%로 증가했고 향후 10년 후(2018년)에는 「고령사회(14% 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인구 노령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현재의 노인들은 무기력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여가생활을 즐기고 노후를 위한 경제력을 갖추며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등 다양한 생활방식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생활변화는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노인가구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에 노인의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설비와 다양한 시설이 개발 및 연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 시 노인가구들을 위해 생활의 편리와 지원을 목표로 배리어프리 디자인, 노인용 욕조, 보조손잡이 등 노인지원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2000년 기준 고령자 가구의 경우 자가거주율은 일반 가구의 54.4%에 비하면 높은 76.3%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구의 90% 이상이 노인복지 방향을 노인이 시설에 가지 않고 기존에 살던 곳 즉, 집과 지역에서 그대로 살게 하는 'aging in plac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실제 노인들의 노후주거지로서 현 거주지역을 벗어나길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up>1)</sup>. 더구나 높은 자가율에도 불구하고 노인가구의 소득 감소와 보유주택의 노후로 인해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질적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줄어들고

\*정회원(주저자), 부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공학박사

\*\*정회원(교신저자), 부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박사수료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09년 한국주거학회의 춘계학술발표대회에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1) 미래주거환경 비전 및 전략연구(2007. 6), 건설교통부, (사)한국주거학회, p. 141

신체적 능력이 떨어진 고령자는 스스로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고령자도 신체적인 특성에 맞게 주택을 개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령자 전용주거에서의 운영자 부도 및 관리소홀 등의 문제가 걱정이 되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현재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박신영, 2008)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주거 문제의 접근에서 신규주택의 문제에 앞서 현재 살고 있는 기존 주택의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인가구의 주거환경에 대한 선호 및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 그리고 안전요구 등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노후상황에 따른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노인의 노후상황에 따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의 주거요구 파악을 위한 연구로 노인의 건강상태와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조사연구가 진행되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오찬욱·이연숙, 1992)와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성희·이태경, 2005)가 있다. 이들 연구는 노인의 노후상황을 건강과 배우자에 한정시킴으로써 노인들의 노후상황에서 나타나는 주거생활변화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노인을 연령에 근거하여 은퇴를 맞이하는 60세 및 65세 이상 또는 예비노인(40세 또는 50세 이상 그리고 성인이 자녀를 중심으로 구분해서 노인을 일정한 연령을 넘기는 노인집단으로 분류함으로써 노인들은 연령적 범주에 따라 그 특성과 변화가 모두 다르게 나타남(배호준, 2004)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 범주를 노인으로 규정하여 단일하게 인식하였다. 이에 대해 고성룡(1999)과 이지숙(2005)의 연구에서는 5세 또는 10세 단위로 연령대를 세분화하였으나 고령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족관계나 주거생활방식에서의 변화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못했다.

반면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고령화율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다양화와 더불어 고령자의 가족구성도 다양화하고 있어 연령만을 고려한 집단분류는 고령기에 나타나는 특성과 주거생활변화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획일적인 주거계획은 각각의 주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노인주거를 위해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주생활 전반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고령기단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角田愛美 외, 2002).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고령기의 장기화에 따라 노인주거의 개발의 문제 뿐 아니라 ageing in place를 지원할 수 있는 노인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노인들의 고령기에서의 노후상황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가구의 고령화에 따른 거주방식 및 가족환경변화 등 주생활전반에 관련된 노후상황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고령기단계를 제안하려는 것이다. 이는 각 고령기단계에 따른 노인가구의 노후생활의 특성을 구체화해줌으로써 노인주거 개발 및 고령화에 따른 노인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에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 노인가구의 노후상황 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령기단계를 제안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와 사회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청 자료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청의 자료분석에서 KOSIS(국가통계포털)사 용은 자료의 습득이 신속하고 자료의 범위와 설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객관적인 고령화사회의 지표라는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고령자통계(2008) 자료의 사용에서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국민연금법에서는 노령연금 급여대상자인 60세부터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를 맞이하는 연령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노인가구는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노인이고 배우자와 같이 사는 가구원이 있다면 이들이 18세미만의 비경제활동인구인 미혼자녀 및 손자, 손녀 등인 경우를 말한다(가구소비실태조사, 2000).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노인가구는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가구원에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구성을 모두 포함한다. 이는 노인의 고령화에 따른 노후상황 파악에서 가족구성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 II. 노인가구의 특성

### 1. 노인의 일반적 특성

노인가구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전반적인 인구비중 및 분포특성, 연간소득분포 및 자가거주특성, 배우자상태, 교육정도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수명은 1971년 62.3세에서 66.2세(1980년), 71.1세(1990년), 75.9세(2000년)로서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78.8세, 2020년도에는 80.7세로 추계되어 앞으로도 평균수명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05).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인 평균수명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소득향상에 따른 생활수준개선과 생활양식 변화, 건강증진을 위한 투자 증가,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확대 등이 분석되었다(한국일보, 2008년 7월 24일).

우리나라 장래추계인구를 살펴보면<표 1>, 2035년을 넘어서면 전체인구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진전된 일본의 경우 2008년 10월 기준으로 75세 이상 인구는 1년 동안 52만명 늘어난 1322만명에 달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4%로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되었다(서울경제, 2009년 5월 31일). 우리나라의 경우는 7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035년에 13%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표 1. 장래추계인구 (단위: %)

연령별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49세 이하	70.9	65.4	60.4	55.3	51.7	48	45.6	42.7	40.2
50-54세	8	8.4	8.3	8.4	7.6	7.5	6.5	7.3	7.1
55-59세	5.7	7.8	8.3	8.2	8.4	7.7	7.7	6.7	7.7
60-64세	4.5	5.5	7.5	8	8.1	8.4	7.7	7.8	6.9
65-69세	3.7	4.2	5.2	7.2	7.8	7.9	8.3	7.8	8
70-74세	3.1	3.4	3.9	4.9	6.8	7.5	7.7	8.2	7.8
75-79세	2.2	2.6	2.9	3.4	4.4	6.2	6.9	7.3	7.9
80세 이상	1.9	2.7	3.6	4.4	5.3	6.8	9.5	12.2	14.5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통계청(장래추계인구, 2010-2030)

연령계층별 연간소득분포와 자가거주비율을 2000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간소득수준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45-49세에서 최고수준에 도달하며, 50세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감소하여 60세 이후 급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가거주율은 연간 소득이 급감소하는 60-64세에서 80%를 넘는 최고수준에 도달하고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아지는 65세 이상에서도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60세 이후의 노인연령은 연간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가율을 가짐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후의 주거문제에 있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서의 거주를 우선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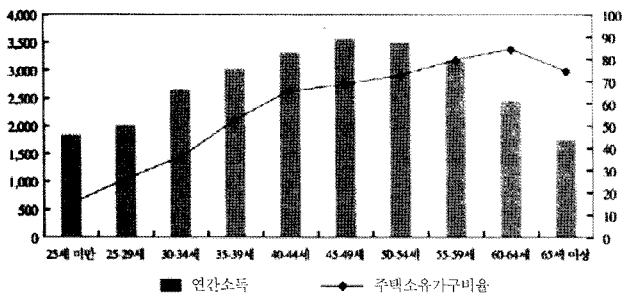


그림 1. 연령계층별 연간소득 및 주택소유가구비율(단위: %) 출처: 송하승(2005), p. 23

노인의 배우자 유무상태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비율이 2000년에 비해 2005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수명연장을 볼 수 있으며, 이로써 노인부부에 의한 노인가구의 비율이 일부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배우자 있음의 비율이 75세 이후에 50%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 있음의 감소비율이 매우 커짐을 볼 수 있다. 이로써 75세 이상에서는 노인가구의 가족구성에서 1인가구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또 아직 그 비율은 매우 작으나 2000년에 비해 2005년에는 황혼이혼에 의한 이혼비율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노후의 다양화를 예측할 수 있다<표 2>.

표 2. 배우자 유무상태 (단위: row%)

	2000년						2005년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미혼	미상	합계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미혼	합계
구성비율 <sup>2)</sup>	60.8	37.8	1.0	0.37	0	100	62.3	35.4	1.7	0.6	100
60-64세	77.5	20.4	1.5	0.5	0	100	78.3	18.0	2.8	0.8	100
65-69세	67.0	31.6	1.0	0.4	0	100	70.9	26.9	1.7	0.6	100
70-74세	47.2	51.8	0.6	0.3	0	100	58.4	40.2	1.0	0.4	100
75-79세							42.6	56.3	0.7	0.4	100
80-84세	25.0	74.4	0.3	0.2	0.1	100	30.1	68.9	0.5	0.5	100
85-89세							19.7	79.2	0.5	0.6	100
90-94세	9.3	90.1	0.2	0.3	0.1	100	10.8	87.9	0.5	0.7	100
95-99세							5.9	92.6	0.5	0.9	100
100세 이상	2.0	94.0	0.1	2.2	1.6	100	2.2	97.1	0.2	0.5	100

출처: 통계청(2000-2005)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노인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2000년에 비해 2005년에 는 무학의 비율이 34.7%에서 26.4%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교육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3>. 특히 2000년에 비해 2005년도에 노인으 로 분류되기 시작하는 60-64세 노인의 경우 대학(4년제 이상)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고학력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다. 노인의 교육수준은 심리적 안녕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에 생활만족도 역시 높아진다(장상희, 1983). 따라서 노인의 교육학습이 꾸준히 제공될 수록 노후생활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여유와 새로운 사회 관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된다.

2. 노인가구의 거주기간

우리나라 노인가구가 현재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2007년을 기준으로 25년 이상(23.0%)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15년 이상(43.0%)으로 나타나 15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가지는 노인의 비율이 66.0%로 노인의 현 거주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국토해양부, 2008). 이에 노인가구의 거주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000년과 2005년을 비교하였다.

연령에 따른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2000년과 2005년에 큰 변화 없이 5-10년의 비율이 가장 높고 25년 이상의 비율이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25년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5-10년으로 나타나 거주기간에서 노인가구의 분포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더욱이 25년 이상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2) 통계청 자료의 제시에 있어, 본 연구의 대상이 60세 이상의 노인 이므로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였고, 60세 이전의 나이대역을 포함하여 전체 인구의 변인별 분포특성에 대해서는 단일 항목으로 '구성비율'로 제시하였다.

표 3. 교육정도

(단위: row%)

연령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4년제미만)		대학교(4년제이상)		대학원		안다녔음		미상		합계	
	2000	2005	2000	2005	2000	2005	2000	2005	2000	2005	2000	2005	2000	2005	2000	2005	2000	2005
구성비율	36.3	36.8	11.0	13.7	11.1	14.5	1.7	1.5	4.5	6.1	0.7	1.0	34.7	26.4	0	-	100	100
60-64세	40.9	36.3	15.9	20.2	16.8	21.7	2.1	1.9	6.4	8.4	1.2	1.6	16.6	10.0	0	-	100	100
65-69세	40.1	40.6	11.5	15.1	12.2	16.1	1.9	1.6	5.1	6.8	0.8	1.2	28.3	18.7	0	-	100	100
70-74세	32.6	39.4	7.2	10.7	6.0	11.8	1.4	1.4	2.6	5.5	0.4	0.8	49.7	30.5	0	-	100	100
75-79세		35.1		7.9						7.0		3.4		0.5		44.9		-
80-84세	20.4	28.3	3.3	5.2	2.6	4.3	0.7	1.0	1.0	2.1	0.1	0.3	71.8	58.8	0.1	-	100	100
85-89세		22.6		3.5								2.9		0.7		1.3		0.1
90-94세	11.5	17.7	1.6	2.5	1.5	2.3	0.5	0.6	0.6	0.9	0.1	0.1	84.1	75.8	0.1	-	100	100
95-99세		12.8		2.0						2.0		0.5		0.8		0		81.8
100세이상	5.7	6.8	0.5	0.8	0.9	0.7	0.2	0.2	0.3	0.9	0.1	0.1	89.2	90.4	3.1	-	100	100

출처: 통계청(2000-2005)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나타났으며 70세 이상의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연령대역에서는 25년 이상의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4>. 이는 노인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거주기간도 길어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ageing in place'의 현황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통계청의 자료제공에서도 2000년에 비해 2005년에는 고령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기본적인 노인들의 자료축적에서도 고령단계의 세분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 연령에 따른 거주기간<sup>3)</sup> (단위: row%)

연령	2000년						2005년					
	5-10년	10-15년	15-20년	20-25년	25년 이상	합계	5-10년	10-15년	15-20년	20-25년	25년 이상	합계
구성비율	47.2	16.9	7.3	6.1	22.6	100	42.3	21.7	7.8	6.0	22.1	100
60-64세	27.7	17.1	9.7	10.1	35.3	100	27.7	21.7	11.0	10.3	29.3	100
65-69세	21.0	12.5	7.3	8.4	50.7	100	21.9	17.6	9.6	9.3	41.6	100
70세 이상							18.4	13.5	7.1	7.7	53.3	100

출처: 통계청(2000-2005)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3. 노인가구의 가구원수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당 가구원수가 점차 줄어들어 소가족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바와 같이 2000년에 비해 2005년에 가구당 가구원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5>. 노인가구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는 가구원수의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인가구와 2인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 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연령대역으로 살펴보면 60-64세에서는 2인가구 및 3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65세 이상에서는 3인가구 이상의 비율이 감소하며, 연

표 5. 가구원수

(단위: row%)

연령별	2000						2005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합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합계
구성비율	15.5	19.1	20.9	31.1	13.4	100	20.0	22.2	20.9	27.0	9.9	100
60-64세	15.8	34.2	24.4	13.8	11.6	100	17.5	35.7	24.9	13.4	8.5	100
65-69세	23.9	40.7	17.9	7.8	9.7	100	23.6	42.5	18.5	7.8	7.6	100
70-74세	33.8	40.7	12.2	5.1	8.2	100	32.1	43.1	12.8	5.3	6.9	100
75-79세	39.5	39.3	9.6	4.2	7.4	100	41.5	39.2	9.4	4.1	5.9	100
80-84세	43.6	37.5	8.3	3.9	6.7	100	46.1	36.4	8.3	3.9	5.3	100
85세 이상	48.6	33.9	7.7	4.0	5.9	100	48.6	33.0	8.6	4.3	5.4	100
연령미상	87.8	8.3	1.5	1.8	0.6	100						

출처: 통계청(2000-2005)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령대가 높아질수록 노인 1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5세 이상에서는 48.6%로 전체의 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가구전반에 걸친 소가족화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의 구분없이 2인가구의 비율이 40%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또 3인 이상의 가구비율도 60-64세는 46.8%, 65-69세는 33.9%, 70-74세는 25.0%, 75-79세는 19.4%이고 고령화가 매우 진전된 80세 이상에서도 17-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84세의 17.5%에서 85세 이상의 18.3%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의 구분없이 모든 고령단계에서 가구원수가 다양하게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노인가구를 1-2인의 소형가구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3인 이상의 다양한 가구구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화에 따라 자녀의 독립, 분가 등의 이유로 노인부부 또는 노인 1인가구 등이 생성되는 비율이 높아질 뿐 아니라 자녀독립시기의 연장 및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가족간의 부양 등 가족생활변화에 따른 가구원수의 증가현상이 나타남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노인가구의 거주유형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사회통계조사에서 '장래에 가장 살고 싶은 곳'에 대한 조사결과

3) 통계청자료 중 5년미만의 거주기간은 단계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노인가구의 경우 점유 비율이 높지 않아 본 연구대상의 특성을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5년이상을 대상으로 재정리하였다.

를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자기집(85.3%), 무료양로원 및 요양원(8.9%), 유료양로원 및 요양원(4.5%)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의 주택소유 욕구를 보여주며, 현 주거에서 지속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

표 6. 장래 살고 싶은 곳 (단위: row%)

	자기집	무료 양로원 및 요양원	유료 양로원 및 요양원	기 타	합계
2005년	85.3	8.9	4.5	1.3	100
2007년	84.9	9.8	4.8	0.5	100
60-64세	86.1	8.2	5.3	0.4	100
65-69세	85.2	9.3	5.1	0.4	100
70-79세	84.8	10.6	4.0	0.6	100
80세이상	77.7	16.5	5.2	0.6	100

출처: 사회통계조사결과(복지,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2007. 11, p. 17

2007년도에도 결과가 동일한 순으로 나타나 자기집에서의 거주선호가 뚜렷함을 볼 수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고령화될수록 양로원 및 요양원으로의 희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의 자기집에서의 거주희망이 가장 높은 것을 감안하면 'ageing in place'를 지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문제파악 및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노인가구의 연령별 주거유형을 살펴보면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역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0년에 비해 2005년도에는 노인가구의 모든 연령대역에서 단독주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대신 아파트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노인가구의 아파트 거주비율의 증가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의 확산과 주거관리의 용이함과 공유공간 및 여가활동, 생활지원서비스 등의 접근용이성 그리고 주거생활의 편리로 인해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표 7>.

5. 노인가구의 자녀 동거여부

노인가구의 자녀와의 동거상태를 통계청(2007) 자료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고령화됨에 따라 자녀와의 동거비율이 60-64세에서는 44.0%, 65-69세는 36.6%, 70-79세는 35.8%로 점점 낮아지다가 80세 이상에서 51.4%로 급격히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이는 3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고령화에 따라 노인가구의 소가족화뿐 아니라 다양한 가구의 모습이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녀와의 동거 및 비동거의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고령화에 따라 70세를 전후하여 70세 이전에서는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가 중요한 이유로, 70세 이후에서는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가 중요한 이유로 나타나 부모와 자녀의 상호의존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8>. 이러한 현상은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80세 이상에서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현재 자녀와의 동거여부(복수응답결과) (단위: %)

	60-64세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같이 살고 있음	44.0	36.6	35.8	51.4	
동거 이유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	15.1	31.2	54	84.7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	48.4	39.2	28.4	15.9
	손자녀의 양육 및 자녀의 기타 가사를 돕기 위해	18.4	27.8	25.4	14.9
	모두 독립생활이 가능하지만 같이 살고 싶어서	29.2	22.7	16.2	6.9
	자녀가 학생 또는 미성년자이므로	11.4	5.3	2.7	0.8
기타	2.2	2.1	1.7	0.8	
같이 살고 있지 않음	56.0	63.4	64.2	48.6	
비동거 이유	독립생활이 가능해서	43.0	37.4	26.2	13.1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	28.7	35.3	41.5	46.1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	50.4	54.9	56.5	59
	자녀의 직장, 학업 때문에	24.5	19.3	19	18.5
	자녀와의 불화로	2.2	2.3	3.0	4.7
기타	2.4	2.3	2.3	3.3	

출처: 통계청(2007)

표 7. 주거유형 (단위: row%)

	2000년							2005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영업용 건물내 주택	기타	합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기타	합계
구성비율	66.9	22.1	4.7	2.3	3.7	0.3	100	60.7	28.5	3.2	5.6	1.7	0.2	100
60-64세	64.3	22.7	5.5	2.7	4.4	0.4	100	56.0	31.0	3.8	6.9	2.2	0.2	100
65-69세	67.5	21.8	4.6	2.2	3.5	0.3	100	61.1	27.8	3.3	5.8	1.8	0.1	100
70-74세	68.4	22.0	4.1	1.9	3.2	0.3	100	63.5	27.1	2.9	4.9	1.4	0.1	100
75-79세								63.8	27.5	2.7	4.5	1.3	0.1	100
80-84세	69.6	20.9	4.0	1.8	3.3	0.4	100	64.3	27.1	2.6	4.3	1.4	0.17	100
85-89세								64.6	26.6	2.7	4.4	1.6	0.2	100
90-94세	72.0	18.7	3.7	1.7	3.6	0.3	100	65.1	26.2	2.6	4.2	1.7	0.3	100
95-99세								67.2	24.3	2.5	4.0	1.8	0.3	100
100세이상	69.9	20.0	4.4	1.7	3.6	0.4	100	69.6	21.8	2.4	3.7	2.5	0.1	100

출처: 통계청(2000-2005)자료를 재구성하였음.

또한 60세 이상의 전체 연령대역에서 ‘손자녀의 양육 및 자녀를 돕기 위해’, ‘독립생활이 가능하지만 같이 살고 싶어서’가 비교적 높은 비중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가족구성의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녀들의 학업 및 취업으로 인해 자녀들의 결혼정년기가 늦어지고 그로 인한 자녀의 독립이 늦어지는 현상을 설명해주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아직은 전통적인 3세대 구성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녀와의 동거에서 노인이 일반적인 혜택을 받기 보다는 동거 자녀세대와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부양을 교환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노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손자녀 돌보기를 비롯해 경제적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경희 외, 2005; 김미희 · 오지영, 2009).

반면, 비동거의 주된 이유로는 ‘독립생활이 가능해서’와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로 나타나 노인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적극적인 노후생활의식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7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70세 이전보다 독립생활의 능력이 보다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가 중요한 이유로 나타나 부모와 자녀세대간의 의식의 차이가 파악되었다.

부모와 동거를 하지 않는 자녀의 거주장소를 살펴보면, 같은 시군구 이내 거주 비율이 다른 지역 및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9>. 이에 대해 실제 사례조사 연구(이가옥 · 권중돈, 1989; 전국인구보건실태조사, 1988)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단독가구의 자녀들은 노인의 주거지역에서 비교적 근거리에서 거주하며, 상호간의 연락 및 접촉빈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박충선, 1998, p. 33에서 재인용).

표 9. 자녀의 거주 장소(비동거시) (단위: row%)

연령	같은 읍면동	같은 시군구	같은 시도	다른 시도	해외	기타	합계
구성비율	19.5	24.3	14.8	36.2	0.7	4.5	100
60-64세	17.8	24.7	15.1	37.7	0.8	3.9	100
65-69세	19.4	24.9	15.2	36.2	0.6	3.7	100
70-79세	20.6	23.9	14.4	35.0	0.7	5.1	100
80-89세	22.6	21.0	12.7	34.7	0.8	8.1	100
90-99세	22.0	16.3	14.2	29.8	0.9	16.8	100
100세 이상	17.6	8.5	6.7	29.7	0	37.6	100

출처: 통계청(2000)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과거에 비하여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희망하고 있어 단독가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노인의 자녀별거가 증가(한경혜, 1998; Han, 1996; 정경희, 2002)할 것이나, 수명연장으로 인해 고령기간이 길어지게 됨으로써 노인의 연령이 높아갈수록 신체적인 의존도가 높아져 자녀동거율에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인에게는 가족이나 친지와 의 연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적절한 지역범위 안에서 다양한 선택성이

있는 환경이 필요(林玉子, 1986; 전명숙, 1992)하며, 특히 노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인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교류의 활성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6. 노인가구의 고령화 구분

노인가구의 노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인 집단이라는 공통성에 근거하여 연령에 따라 고령화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국내의 연구로 고성룡(1999)은 노인을 노화정도와 심신활동능력, 노인시설 이용도를 고려하여 노인전기, 노인중기, 노인후기의 3단계로 구분하였고, 김정석(2005)은 자녀세대와의 세대구성형태를 중심으로 저고령(80세 이전)과 초고령(8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박신영(2006)은 75세를 전후로 구분하여 노후주거문제에 대한 대처 경향을 고령자의 특성으로 파악하였다. 또 이지숙(2005)은 가장 세분화하여 65세부터 5년 단위의 분류를 시행하여 실별 불편사항을 파악하기도 하였다. 이외에 노인의 노인인지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0-74세에서 47.2%로 가장 높게, 65-69세는 30.8%, 60-64세는 12.9%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80세 이상도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2005, p. 38). 이는 노인의 고령화 구분에 있어 노인 자신들은 우리사회가 통상적으로 노인으로 간주하는 65세보다 높은 연령을 노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인가구의 고령화 구분에서 노인의 연령 외에 생활의식차원에서의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국외의 연구로 미국의 Neugarten(1973)은 노인집단을 노인의 사회적 관계와 신체적인 쇠약에 따라 연소노인(young-old), 중고령노인(middle-old), 그리고 고령노인(old-old)의 3개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Brody(1977)는 뉴가튼의 연소노인 단계를 60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제시하였고, 이후 Atchley(1980)는 브로디의 연소노인과 중간노인을 합쳐 한 개의 집단으로 특성화 하여 분류하였다(홍숙자, 2002, p. 14에서 재인용).

이에 대해 Duvall(1971)은 노인을 단지 나이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각 개인의 노화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관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주장하여, 한가정의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에서 나타나는 변화과정을 8단계<sup>4)</sup>로 나누어 그 중 자녀들을 가정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한 자녀진수기가족(6단계)부터 부부만 남는 시기에서 퇴직까지의 중년기가족(7단계)과 퇴직후 사망까지의 노년기가족(8단계)을 노인가족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단계별 특성화에 주목함으로써 노인가구로서의 가족관계나 주거생활방식 등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이에 대해 Atchley(1980)는 연령단계와 개인의 인생주기를 연계시킴으로써 연령에 따른 생활주기(생활주기, 직

4) 홍숙자(2002), 노년학 개론, 도서출판하우, pp. 131-132

표 10. 노인의 연령에 따른 고령화 구분

연령구간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고성룡 (1999)	55-65(노인전기)		66-74(노인중기)		75-(노인후기)	
	주거환경이 전환되는 시기		노인사회의 중심으로 각종 노인시설의 주체로 활동이 활발한 시기		이동이 불편해져서 환경에의 적응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타인의 보조가 요구되는 시기	
김정석 (2005)	저고령					초고령
	자녀동거가 두 세대 간 지원교환의 성격, 자의성을 띤					자녀동거가 노부모 부양의 성격
이지숙 (2005)	-		65-69	70-74	75-79	80-
박신영 (2006)	-		65-74		75-	
	-		노후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노력		노후주거문제의 자녀의존 경향이 높음	
Neugarten (1973)	55-64		65-74		75-	
Brody (1977)	-	60-64	65-74		75-	
Atchley (1980)	-	60-74			75-84	
番場美子, 竹田喜美子 (2003)	-59	60-64	65-69	70-74	75-79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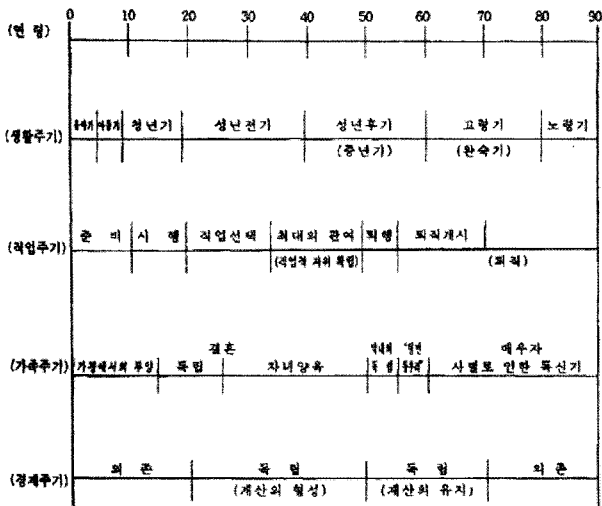


그림 2. 연령에 따른 생활·직업·가족·경제주기  
출처: 배종근(2000), p. 25

업주기, 가족주기, 경제주기)의 흐름 및 변화를 살펴보는 틀을 제시하였다<그림 2>. 이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생활주기의 흐름 및 변화를 살펴보는 것으로는 용이하나 노인기를 크게 고령기(완숙기)와 노령기의 두 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직업주기, 가족주기, 경제주기의 변화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어 노인가구의 노후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고령화 연구가 앞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연령에 근거하여 고령기를 일반적인 은퇴연령인 60세

부터 5세 간격으로 구분하여 Stage 0(59세 이하), Stage 1(60세-64세), Stage 2(65세-69세), Stage 3(70세-74세), Stage 4(75세-79세), Stage 5(80세 이상)의 6단계로 분류하고 실버스테이지(Silver Stage)로 명명하여 가족관계나 주거생활방식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고령분류를 시도하였다(番場美惠子·竹田喜美子, 2003). 실버스테이지 분류에서는 노인의 연령을 기본으로 하되 가족구성, 동거상황, 가족교류상황, 생활의식, 근린교류, 취미 및 활동, 그리고 주생활행위(개(個), 공(共), 객(客))를 변인으로 하여 연계 분류함으로써 고령화에서 나타나는 노인가구의 다양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표 11>.

고령분류의 변인 중 가족구성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가구의 구성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세대구성(부부 또는 부부+자녀) 및 노인1인의 독거 상태를 통해 설명하였다. 동거상황은 고령화에 따른 자립생활의 여부를 자녀와의 동거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동거-중거-재동거로 분류하였다. 특히 중거(中距)는 독립한 자녀가 부모가 살고 있는 거주지와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에 거주하는 것으로 부모와 자녀의 거주지를 교통수단 등을 포함하여 고려함으로써 거주특성을 자녀와의 동거여부뿐만이 아닌 비동거의 경우를 고려하여 이해하고 있다.

가족교류상황은 고령화에 따른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패턴으로 고령화에 따른 신체적·경제적 특성을 자녀와의 교류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생활의식은 고령화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변화에 주목하여 고령자로서의 자각여부 및 노후생활에 대한 태도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근린교류는 고령기에 들어선 대부분의 노인들의 사회생활 특성을 보여주는 변인이다. 고령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회적 접촉의 기회가 줄어들어 사람들과의 교류가 어려워지므로 노인은 취미 또는 활동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가지고자 하며, 특히 취미를 통한 서클이나 자원봉사활동의 영향이 크다(番場美惠子·竹田喜美子, 2006). 따라서 근린교류를 노인의 활동범위에 근거하여 파악하였다.

주생활행위는 고령기를 맞이한 노인에게 있어 주거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현저히 늘어나는 등 주거 내에서의 생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생활행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변인이다. 이를 위해 주생활행위를 개인생활행위(個), 공동생활행위(共), 접객행위(客)의 3개로 크게 구분하여 그에 따른 사적공간과 공적공간 그리고 접대공간의 필요성과 구성특성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변인을 근거로 파악한 각 실버단계별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Stage 1. 가족구성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단계로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자녀가 독립을 하였을 경우에도 지속적인 친자간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이 시기는 고령기를 맞이하는 초기단계이므로 고령기임을 자각하기보다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이루어지며, 타인과의 교류보다 본인을 위주로 한 취미활동을 전개한다. 은퇴한 노인의 개인적 공간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간도 중요하다.

표 11. 실버스테이지(Silver Stage, 番場美惠子, 竹田喜美子, 2003, 2005, 2007)

	Stage 0	Stage 1	Stage 2	Stage 3	Stage 4	Stage 5
고령자의 연령	59세이하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이상
가족구성	부부+자녀	부부+자녀	부부	부부 또는 독거	부부 또는 독거	독거
동거상황		동거		중거(中居)		재동거
가족교류상황		부모자립·자녀의존/교류있음		부모·자녀자립·교류없음	부모·자녀자립·교류없음/부모·자녀자립·배려형	부모의존·자녀자립형
생활의식		고령자로서의 자각이 적으며, 노후를 향후의 일로 생각한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취미나 활동을 하며, 활동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체력적으로 자신감이 없어지는 등 노령화가 나타나는 시기로 고령기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생활의식과 활동상황이 개인에 따라 양분화 된다.		실질적으로 신체의 부자연스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나고, 불안과 불편함이 현실문제로서 나타난다. 자신 이외의 사람에게 의존하는 의식을 가지게 되며, 지역 활동의 참가 비율이 감소한다.
근린교류		단지 내(주거지에 가까운 주변)보다 외부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시된다(Stage 5에서는 더 이상 취미를 가지지 않는 비율이 높아진다).
취미 및 활동		타인과 관계하는 취미를 갖지만, 서클에는 소속되지 않았다. 불특정의 사람과 접촉하지만 타인과의 교류보다 취미 추구를 중요시한다.		특정 모임집단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타인과 교류하고 있으며, 다수의 서클가입과 취미를 가지고 있다.		취미를 가지고 있으나, 혼자서 행하며 취미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가 없다.
주생활행위 (개(個), 공(共), 객(客))		개(個)가 독립하지 않고, 공(共)의 일부이다(퇴직 후의 생활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個)의 확립과 함께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도 많기 때문에 공(共)도 중요하다).	점차 아이덴티티의 확립이 생기며, 개(個)가 독립하기 시작한다. 또한 주거 내에서도 부부가 별도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진다(아이덴티티의 확립을 위한 개(個)의 충실과 타인과의 관계인 객(客)에 의해 균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행위가 한 곳의 실에서 행해지게 되며, 취침이 중심인 생활이 된다(심신의 약화에 의해 취침이 중심이 되나 은둔생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객(客)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각의 행위를 실을 이동하는 것에 의해 생활의 구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Stage 2. 노인부부로 구성된 가구가 증가하고 자녀들의 자립이 서서히 시작되며 부모의 거주지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속적인 교류가 있다. 이 시기에는 주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하며, 개인적 공간과 접객을 위한 공간 등의 균형이 중요시된다. 그 외 자녀교류상황, 생활의식, 근린교류, 그리고 취미 및 활동은 Stage 1과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Stage 3. 노인부부가구 외에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이 높아진다. 이 시기는 부모와 자녀가 자립함으로써 상호교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노인은 특정한 모임집단에 참여하게 되며 타인과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약해져 고령자임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Stage 4. 가족구성 및 동거상황은 Stage 3과 동일하나 타인과의 관계와 지역 활동이 점차 줄어든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생겨난다.

Stage 5.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며, 실내에서의 모든 행위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Stage 1이나 Stage 2와는 달리 부모가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어 동거로 전환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番場美惠子와 竹田喜美子에 의한 일본의 고령화단계는 노인의 주생활의식특성이나 가족관계 등을 고령화와 연결시켜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고령기를 이해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족구성, 사회활동 여건 등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 노인의 고령기와는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한 노인가구의 고령기단계가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 III. 노인가구의 고령기단계 설정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고령기단계를 설정하기 위해 番場美惠子와 竹田喜美子의 실버스테이지<표 11>를 기본틀로 하고, 우리나라의 가족구성, 주거유형 등에 관한 사회인구학적 자료(통계청 자료)와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고령기의 노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변인을 선택하였다. 고령기 단계는 먼저 연령을 기준으로 고령기의 사회인구학적 기본자료가 가지는 5세 간격에 따라 은퇴를 맞이하는 60세부터 구분하여 5단계로 분류하였다. 이는 고령기의 사회인구학적 자료의 지속적인 보안을 용이하게 하는 틀로서의 장점을 가지게 된다. 고령기단계에 따른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거주 및 가구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변인은 가족구성, 동거상황, 주거유형, 주거이동, 생활의식 등의 5가지로 하였다. 이 변인들에 근거하여 노인가구의 고령화에 따른 고령기단계별 가구구성특성 및 주생활특성을 파악하였다.



표 12. 노인가구의 고령기단계

고령기단계	고령단계 1	고령단계 2	고령단계 3	고령단계 4	고령단계 5
연령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가족구성	부부 또는 부부+자녀 부부가구보다 자녀동거가구 비율이 높음	부부 또는 부부+자녀 부부가구 비율의 증가/자녀동거가구보다 부부가구 비율이 높음.	부부 또는 독거 독거(노인1인가구) 비율의 증가/부부가구 비율이 높음	부부 또는 독거 또는 자녀동거 독거(노인1인가구) 비율의 증가/자녀 및 손자녀 동거가구의 증가	독거 또는 자녀동거 독거(노인1인가구)비율이 높음/자녀 및 손자녀 동거가구 비율이 높음
동거상황	손자녀의 양육 및 자녀의 기타 가사를 도움				노부모 부양성격의 자녀동거가 나타남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 자녀와 동거		자신들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 자녀와 동거		
주거유형	자가율이 높음, 현거주 주택에서의 거주선호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음/ 아파트 거주비율이 증가				
주거이동	주거이동이 일부 나타남				
	주거이동이 거의 없음		주거이동이 거의 없음/거주기간의 증가가 뚜렷함		
생활의식	노화를 지각		노인임을 지각		노화가 상당히 진전된 노인으로 지각
	주거환경이 전환되는 시기		노인사회의 중심으로 각종 노인시설의 주체로 활동이 활발한 시기		거동이 불편해져서 환경에의 적응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타인의 보조가 요구되는 시기
			노후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노력		노후주거문제의 자녀의존 경향이 높음

노인가구의 고령기단계의 분류변인 중 가족구성은 노인가구의 가구구성을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부부, 부부+자녀, 독거(노인1인가구), 1인노인+자녀 또는 손자녀 등 1~2세대 구성 외에도 3세대구성 등 다양한 구성방식이 파악되었다. 동거상황은 부모와 자녀의 상호교류방식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동거여부, 자립생활의 상태에 따른 부모와 자녀의 의존과 부양 등이 파악되었다. 주거유형은 노인가구의 거주특성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주택의 소유상태, 주택유형, 거주선호 등이 파악되었다.

주거이동은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젊은이들보다 주거이동이 적으며 특히 자가를 소유하는 경우와 주변에 가족과 친구가 있거나 사회적 애착이 강할 때 이동률이 적어지는 것으로 보고됨(최정신, 1989)에 따라 노인가구의 주거지 이동특성을 보여주는 변인으로 현재 거주하는 주택 및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거주 및 거주기간이 파악되었다. 생활의식은 노인가구의 생활전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보여주는 변인으로 노인 스스로의 고령화 지각, 주거환경 및 주거문제에 대한 태도, 노인사회 역할 등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변인을 바탕으로 각 고령기단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표 12>.

고령단계 1. 가족구성은 부부 또는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단계로 자녀의 독립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자녀가 독립을 하였어도 부모가 손자녀의 양육 및 자녀의 가사 등을 돕는 교류가 나타난다. 은퇴를 맞이함에 따라 노인가구의 주거이동이 일부 나타나기도 한다. 자가율이 높고 거주기간도 비교적 길며 현 주택에서의 지속적 거주를 선호한다. 고령기에 들어선 초기단계로 노화를 지각하는 시기이다.

고령단계 2. 자녀동거가구보다 부부가구의 비율이 높은 시기이나 부모가 자녀를 지원하는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노인임을 지각하게 되고, 노인사회의 중심으로 노인시설의 주체로 활발한 참여와 자립적인 노후생활이 이루어지며 노후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고령단계 3. 노인부부가구 외에 독거(노인1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자녀와의 동거비율이 낮으며 주거이동이 거의 없으며 거주기간의 증가가 뚜렷이 나타난다. 고령단계 3과 동일하게 노인사회의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지속된다.

고령단계 4. 가족구성은 부부, 독거, 자녀와의 동거 등 다양한 가구구성이 나타난다. 노화가 진전된 상태로 지각하고, 거동이 불편해져 일상생활에서도 타인의 보조가 필요하게 되어 동거상황에서도 자녀에게 의존이 나타난다.

고령단계 5. 노화가 상당히 진전된 노인으로 지각하고 거동의 불편으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보조를 필요로 한다. 독거(노인1인가구)외에 자녀 및 손자녀와의 동거(3세대가구) 비율이 높아진다. 노후주거문제에의 자녀 의존 경향 뿐 아니라 고령단계 1과 2와 달리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교류형태가 나타난다.

노인가구의 관련변인에 근거하여 고령기단계를 제안하고 단계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령기단계를 통해 노인의 수명연장에 따라 길어진 고령기에서 노인의 고령화에 따른 주거생활변화 및 생활특성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노인주거계획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시된 고령기단계는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로 함으로써 노인주거계획 중 주택의 공간구성을 위한 주생활특성에 대해서는 고령기단계별로 구체화 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IV. 결 론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은 고령기가 연장됨으로써 고령화 정도에 따라 다양한 요구를 가지게 될 것이며, 노인의 경제력 증대와 자녀수의 감소는 향후 노인 가구의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노인의 거주특성으로 현 거주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거주주택의 노후화 문제해결의 필요성과 노인의 고령화를 배려한 주거환경으로의 변화요구가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후상황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고령기 단계를 제안하였다. 고령기단계는 사회인구학적 기본자료특성을 반영하여 연령을 기준으로 은퇴를 맞이하는 60세부터 5세 간격으로 구분하여 5단계로 분류하였다. 고령기단계에 따른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거주 및 생활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구성, 동거상황, 주거유형, 주거이동, 생활의식 등의 5가지 변인들에 근거하여 노인가구의 고령화에 따른 고령기단계별 가구구성특성 및 주생활특성을 파악하였다.

노인가구의 가족구성은 고령기 초기인 고령단계 1과 2에서는 부부가구와 부부와 자녀의 동거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령단계 3에서는 부부가구의 높은 비율 외에 독거(노인 1인)가구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고령단계 4와 5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3세대가구의 특성도 나타나는 등 다양화됨을 볼 수 있다. 노인가구의 자녀와의 동거상황에서는 자녀동거가 노부모의 부양성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독립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손자녀의 양육 및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등 두 세대 간 지원교환 성격의 교류관계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노인가구의 주거유형으로는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아파트에서의 거주비율도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0-2005). 또한 현 주거지에서의 거주기간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ageing in place'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지속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인주거환경의 구축에서는 고령기단계에 따른 주거생활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생활의식에서는 연령이 높아갈수록 주거환경에서 적응하는 능력이 약해짐으로 노화 정도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조성과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사회생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고령기단계의 체계화는 고령기단계에 따른 노인가구의 노후생활의 특성을 구체화해줌으로써 노인주거 개발 및 고령화에 따른 노인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에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시된 고령기단계는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로 함으로써 노인주거계획 중 주택의 공간구성을 위한 주생활특성을 고령기단계별로 구체화 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향후 고령기단계의 틀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조사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고령기단계에 따른 노인 주거환경계획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통계청(2000, 2005, 2008), 고령자통계자료.
2. 고성룡(1990), 환경·행태적 측면에서 고려한 공동주택거주노인의 주거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경상대 논문집, 29(1), 243-254.
3. 고성룡(1999),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계획 연구, 서울대 건축학과 박사논문.
4. 국토해양부(2008), 2007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5. 김정석(2007), 패널자료를 이용한 노년기 거주형태 변화분석, 한국인구학, 30(1), 1-24.
6. 김태일(2000), 인구구조의 변동에 따른 고령자 주택형태의 변화와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1985년과 1995년 인구·주택 총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20(3), 37-50.
7. 박신영(2008),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한국주거학회지, 1(5), 31-35.
8. 박신영·지은영·최은희·한수진(2006), 고령자의 주거선호 다양성과 정책적 함의, 노인복지연구, 겨울호 통권 34호, 한국노년복지학회, 88-104.
9. 박충선(1998), 노년기의 생활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2), 30-46.
10. 배중근(2000), 高齡化 社會에 對應한 老人住宅研究,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11. 사회통계국, 사회복지통계과(2007. 11).
12. 송하승(2005), 고령화사회와 대응과제 2, 국토연구원, 20-31.
13. 오찬옥·이연숙(1992), 노년기 주거욕구 파악을 위한 하위상황설정기준-배우자 유무 및 건강상태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2(2), 123-137.
14. 이기욱·권중돈(1989), 노인가구의 형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14, 113-135.
15. 이연숙·박정아·오찬옥(1994), 노인단독가구의 환경적 지원성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4(1), 84-94.
16. 이지숙(2005), 노인의 연령 및 주거유형별 주택내 각 실의 불편사항,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6(6), 47-54.
17. 정경희(2002), 老人의 居住形態 決定要因에 관한 研究, 보건사회연구, 22(1), 102-127.
18. 정경희(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책보고서 2005-03), 보건복지부.
19. 정경희·이윤경·이소정·오영희·손창균·방효정·유산현(2005),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실시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 조성희·이태경(2005), 예비노인의 노후상황별 주거환경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6(4), 9-16.
21. 최정신(1989), 老人住宅에 關한 이론적 고찰, 성심여자대학교 학술저널, 21, 267-322.
22. 角田愛美·竹田喜美子·番場美惠子·伊佐消繪(2002)シルバーステージにおける家族構成の変化:在宅高齢者住宅における高齢者と家族の住生活に関する研究 その3, 日本建築學術講演梗概集, 5637, 241-242.
23. 番場美惠子·竹田喜美子(2003),シルバーステージからみた高齢者の近隣交流に関する研究:集合住宅団地GHにおけるケーススタディ, 日本家政學會誌, 54(6), 491-499.
24. 番場美惠子·角田愛美·伊佐消繪·竹田喜美子(2003), 高齡期における親子の居住關係と交流狀況:シルバーステージからみる高齡期の居住ネットワークに関する研究 その1, 日本建築學術講演梗概集, 5652, 151-152.
25. 番場美惠子·竹田喜美子(2005), 都市集合住宅居住の自立高齡者における「個」を中心とした住まい方の変容過程:シルバーステージからみた高齡期の居住環境に関する研究 その1, 日本建築學會會計書系論文集, 592, 25-31.
26. 番場美惠子·竹田喜美子(2007),シルバーステージによる親子の居住關係と交流パターンの変容過程:シルバーステージからみた高齡期の居住環境に関する研究 その1, 日本建築學會會計書系論文集, 613, 23-29.

접수일(2009. 7. 24)

수정일(1차: 2009. 9. 4)

게재확정일자(2009. 9. 23)